

나는 이제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없게 됐다. 누군가 고통을 주려고 나를 만든 것만 같다. 며칠 전부터 이런 불쾌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새까만 우주처럼 차올랐고, 다만 ‘합격’이라는 희망 한 가닥이 우주복에 달린 구명줄처럼 아슬아슬하게 나를 잡고 그 속을 어색하게 유명하게 한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일주일 앞둔 나는 '우지'다.

채워진 한숨과 한여름 젊은 남자가 뿜는 체취만으로 이미 터질 듯 답답한 고시원 벽면 달려엔 지나온 날짜들에 X가 쳐져있고, 일주일 후 '지옥 탈출'이라고 적힌 날에 빨간 동그라미가 수십 번 그려져 있다. 달력을 산처럼 올려보며 선 우지는 흐르는 땀에 부채질로 겨우 버틴다. 그러다 쿵쿵거리곤 허둥대며 뛰쳐나가 멀리서 작은 소란을 피운다. 이에 문고리에 걸려있던 검은 쓰레기봉지가 떨어져 지느러미 같은 비닐이 지열(地熱)에 느물거리며 녹듯이 쓰러지려는 찰나, 웬 냄비를 들곤 방으로 들어와 얼른 내려놓았다. 뜨거운 손을 식히려 바닥에 댔지만 도리어 익으란 듯이 타오르는 열기를 선사해 우지를 필쩍 뛰게 했다.

“시끄럽다, 우지야.”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같은 공시생이자 친한 형이다.

“미안해요... 시우 형”

우지는 민망해져 선택로 라면을 깨작거렸다. 휴대폰 뉴스엔 환경오염과 산업설비노후 문제가 심각하단 기사가 나오지만 우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을 하라 기사가 더 신경 쓰인다.

3년차 공시생인 우지는 출제된 문제의 적합성을 평가할 정도의 실력이었다. 하지만 결국 종이 자기머리를 못 미는 이치일까. 당면한 시험에서는 맥을 못 폈다. 우울한 우지의 마음을 누군가 두드린다, 아니 두드려진 건 방문이었다. 찾아오는 이들의 용무는 대부분 공과금이나 월세요구였으므로 거의 대인기피가 걸릴 지경이 된 우지는 불안해하며 문을 살짝 여는데 상대방이 확 열어 재긴다.

“이번 달은 안 밀릴 거지?”

파마 물을 만 채 불쑥 남의 공간을 침범해 큰소리를 치는, 이 고시원의 주인아줌마다. 고압적인 태도에 우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인다.

“다음 달부터 월세 3만원 오를 거야. 알지? 요새 물가가 말도 안 돼졌잖아. 공시 준비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거 아니야.”

“오히려 더 모르죠.”

아줌마는 반항적인 우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학생?”

우지는 괜히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는 생각에 화제를 돌린다.

“...지금도 밀리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학생만 봐줄 순 없잖아. 방세 밀린 게 자랑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근데 학원, 뭐 독서실 같은 덴 안가?”

무슨 상관이나 묻고 싶었고 고압적인 태도가 불쾌했지만 실질적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으므로 입만 삐죽 내민다. 주인이 할 말 안 할 말 다 토하고 나가자 우지는 외시경을 통해 밖을 확인한다. 그리곤 ‘굳이 외시경까지 달아서 방세를 비싸게 받냐...’ 며 중얼거린다.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라도 있어서 학원을 갔으면 이 시간에 이런 불쾌한 상황을 안 겪어도 됐었다고 생각한다. 지구에서 자신만 힘든 느낌에 입맛마저 없어져 남은 라면을 버리러 공용식당으로 향한다. 켜놓은 스마트폰에서 지진재난경보가 울린 건 그 때였다. 라면잔반을 처리하는 우지는 이 순간에 결국 봐야 할 걸 못 봤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고시원 안에 몇 없던 사람들은 고개만 조금 내밀곤 당황했다. 틀어놓은 수도물에 자신의 침울함을 실어 보내던 우지는 닫힌 식당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도 못했다. 알았지만 그냥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긴 걸지도 모른다. 불 꺼진 식당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하고 있는 우지 옆 작은 창문으로 환한 대낮에 무너져 가는 건물이 보인다.

“우지! 뭐 하냐, 빨리 안 나가고!”

저 세계 어딘가로 넘어가던 우지의 의식을 붙든 건 시우였다. 우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지진을 느껴 소스라친다.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해서 야트막한 집들과 구조물들은 갈라지는 지대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켜놓은 우지의 스마트폰에선 [지구촌 사상최대의 재난]이라면서 앵커들과 특파원들이 침착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 고시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건물 자체가 요동을 쳤는데 그 진도가 지진자체의 강도보다 훨씬 강하며 기계적이었다. 그런 건 알 리 없고 ‘그 비싼 월세를 주는데 이렇게 흔들리나’ 는 생각을 하며 식당 문을 열자 널브러진 신발들과, 물건들이 금방의 혼란함을 보여줬다. 우지도 밖으로 나가려다 탈출을 재촉하는 시우에게 먼저가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져 공책 몇 권을 꺼낸다. 자기가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시우가 방문을 열며 다그치자 시우도 챙겨야 할 걸 챙기겠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 질책에 우지는 눈을 부릅뜨고 말한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혀를 차면서도 시우 자신도 방으로 들어간다. 우지가 간단히 짐을 챙겨 공책을 바라보며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프레스기가 위에서 누르는 듯 엄청난 압력에 눌러 쓰러졌지만, 그 순간에도 공책을 짊어지고 있다.

번쩍 눈 뜬 우지는 앞이 안보여 또 기절할 뻔 한다. 시력을 잃었다고 짐작하며 몇 번 눈을 깜빡이고 주무르니 희미하게 보인다. 불까지 꺼진걸 보고, 방과 함께 땅에 묻혔고, 자신이 결국 재난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체념한다. ‘구조대는 언제, 어떻게 오는 걸까. 뉴스에서처럼 기적적으로 구출될까. 근데 난 왜 괜찮지? 몸이 다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하지, 작년에 붙었다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하고 싶었던 미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 이런 꼴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우지는 문을 열기로 한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우지는 그렇게 행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다. 문 쪽으로 움직이려던 우지는 자신의 몸이 떠있다는 것을 느낀다. 사물들까지. 이상함에 문을 열기 직전, 방을 확인하기로 한다. 전화는 안 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 방 안을 확인한다. 물건들이 떠있다는 거 말곤 오히려 너무 멀쩡했다. 이상할 만큼 튼튼한 느낌이다. 쓰러진 새 우렁이 각시가 몰래 수리한 느낌이다. 불빛으로 창문을 비추자 철판으로 봉쇄된 걸 확인한다. 알 수 없는 상황에 꿈이라고 여기고 싶을 만큼 두려워져 좁은 방안을 배회하며 물건들과 부딪힌다. 한줄기 빛을 보기 전까지. 문의 외시경에서 들어온 빛을 쫓아 허공을 헤엄쳐 거의 빠질 듯 눈을 대자 빛은 멈추고 광원이 되는 곳이 희미하게나마 보인다. 최대한 뚫어져라 쏘아보는 우지의 시선에 똑같이 자신을 쏘아보고 있는 사람의 광기어린 눈이 스치며 그 안광이 번쩍인다. 우지는 놀라 물러난다.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이 바로 앞인지 잠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온다. 그러다 일순, 쿵! 하며 우지의 방문이 무언가에 세계 받힌다. 다시 외시경을 통해 밖을 보니 그 사람의 공간이 금방의 충격으로 점점 멀어지며 한눈에 파악되기 시작한다. 그쪽도 방이다, 문이 열린. 어떤 영문인지 그 방은 열린 어둠속에 부유(浮游)하며 천천히 회전마저 했다. 이내 그 열린 문에서 사람이 뛰쳐나와선 역시 허우적대며 부유한다! 그런데 숨이 막히는 지 목을 잡고 한참을 허우적거리더니 이내 육신이 터진다. 터질 때의 핏방울이 우지의 외시경에 튀어서 죽어가는 광경까지 목격하진 못했지만 완전히 겁에 질리기엔 충분했다. 오류로 잠깐 켜진 스마트폰에선 차량광고가 나오는데 <놀라움의 연속, 앞으로도 이어질>이란 문구다. 우지는 소매로 외시경을 닦아보지만 밖에서 튄 피가 안에서 닦일 리 만무하다. 그러다가 미끄러져 손잡이를 잡게 되자 어떻게든 안 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보니 손잡이가 상하가 아닌 전후로 잡아당겨졌는데 딱 쿵 손가락이 손잡이 안쪽에 있던 요상한 빨간 버튼을 누른다.

- 우주선 완전전환 및 비상전력 가동

방에 설치된 경비실 연결용 스피커에서 영어가 흘러 나왔지만 영어듣기로 단련된 우지는 단박에 알아들었다. 그리곤 방에 불이 켜진다. 물건들과 자신이 확실히 떠있었다. 놀란 토끼눈이 된 우지가 그 광경을 감상하는 것도 잠시, 곧장 다시 중력이 생기며 사물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허리를 부여잡고 골골대며 일어나 상황과악에 나선 우지.

- 조작을 하십시오

방을 둘러보던 우지 앞엔 이제야 온전히 밖을 비추는 창문이 보였다. 우지는 두려움과 호기심을 가득안고 서서히 창문 쪽으로 향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지구였다. 그것도 아주 처참한 꼴의.

인터넷에서 흔히 봐왔던 지구라 실물로 처음 본 이 순간에도 이성적으로 식별했지만 그보다 마치 잃어버렸던 혈연을 처음 만났을 때의 직감에 가깝다.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돌덩어리구나.’ 그러나 옷이라도 입은 듯 황색 가스들과 화염에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어져 있었다. 우지는 라면을 먹을 때 본 설비노후문제가 생각났다. 이 모든 상황에 왈각 흐를 것 같은 눈물을 꼭 참고 있는 와중, 창문에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띄워진다.

[가 호흡 산소 80%]

[습도 50%]

[Wi-Fi Off]

분류별로 진단된 상황들을 보고 별의별 생각이 든다. 오늘은 아직 운동 전이라 산소가 많아 다행이고, 며칠 전 온 비 때문에 습기가 남아있어 다행이고. 사실 집이 노후 돼서 그런 거지만 이럴 땐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 되면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끝까지 안 알려준 주인이 야속할 따름이었다. 문제는 비상 전력이다.

[비상 전력 48%]

월세가 밀려서 그런지 남은 전기량이 얼마 없었다. 주인이 너무 야속했다.

[개체 간 소리 수 발신 / 가능]

다른 건 소설이나 게임에서 봤던 걸로 이해했는데 이 문장은 바로 해석이 안 됐다. 고민하며 소리가 난 스피커를 유심히 보니 작은 구멍이 있다. 반사적으로 소리를 내봤지만 반응은 없다. 희미하게 나는 작은 소리에 귀를 대보니 시선은 자연스레 스피커의 측면을 가까이서 응시하게 되었고, 그 시선에 유난히 볼록 튀어나온 버튼이 들어왔다. 자연스레 눌러보니 지지직대는 기계음이 났다. 그때 재채기가 나왔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의 놀라는 소리였다. 뭔가를 깨달은 듯 어금니를 짝 문 우지의 얼굴에선 땀이 얼굴의 수염을 하나하나 훑으며 흐르고 있었다. 곧 턱으로 모여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지며 물 파장을 일으키자마자 우지는 마이크에 대고 자신이 했던 방법을 고래고래 소리쳤다. 한국사 1타 강사의 방식을 떠올리며.

여행이라고는 부모님을 따라 경주에 간 것이 고작이고 특별한 경험이라고는 그 곳에서 ATV를 타본 것이 전부인 우지는 창문으로 보이는 망해가는 지구에 놀래야 할지, 갑작스럽게 떠나 온 우주여행에 놀라야 할지, 그 여행객이 자기만이 아니라는 것에 놀라야 할지를 몰라 또 놀랐다. 우지가 불시착한 우주 한복판엔 대부분의 집들은 다 고시원 같은 작은 방이거나 인도 같은 나라의 판자촌이었다. 지구근처를 뚝뚝 떠다니는 집들의 향연은 충격적이었다. 그 상태로 집 정리를 하다가 자신의 노트를 주운 우지는 충격과 슬픔 따위의 지구의 감정을 뒤로하고 현실을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다.

집의 전체적인 조작은 에어컨 리모컨으로 했다. 왜 멀쩡한 최첨단 창문을 놔두고 실내등을 켜려면 눌러야 하는 게 [강풍]버튼인지 [미풍]버튼인지도 모를 리모컨으로 이 허름하게 엄청난 '고시원 우주선(사람들은 고주선이라고 불렀다)' 을 조작해야하는지도 몰랐지만 생존 앞에 그런 물음은 무의미했다. 창문이 있는 집은 창문으로, 창문이 없는 집은 외시경에 얼굴을 인식하면 외부영상송출이 가능해서 그 모습으로, 그것도 안 되면 소리만으로, 아무런 시청각 장치가 없는 이들은 그저 듣기만 하고 집의 움직임(로켓 추진체가 달려 이동이 가능했다)으로 긍정과 부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대화를 해나갔다. 대부분 한국인이거나 동양인이고 일부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었다. 그러나 최근 잘된 우지 누나에게(대출이지만) 새 집을 선물 받은 부모님의 집은 보이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들은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토론했다. 물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무의미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다들 좁은 방에 변변찮은 물품들이 있는 것

도 아니었고, 오히려 라면을 끓이는 등의 행위를 하던 이들이 비상탈출 중에 다쳐 응급구조물자를 어떻게 발신할지 등과 같은 눈앞에 닥친 ‘현실’만 해결하는 것도 바빴다. 우주에서도 우선이 현실문제 해결이라는 점이 우지를 다시 슬프게 했다.

답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한창 떠들고 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그들의 우주 한복판에 도착한 집에서. 그 집은 상대적으로 컸다. 오피스텔이었으므로. 소통을 시작하고 알게 된 그 여자는 기계치에 한 젊은 열혈 화훼업자인 지화였다. 지화가 늦게 오게 된 이유는 자명했다. 오히려 그 당사자만 모를 법 했다. 그 집에 뒤로 묶인 단단한 와이어는 꼬리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고 끝엔 커다란 바위가 달려있었다. 외국인들 중 몇몇은 '왜 고환을 달고 왔냐?'며 놀라고 웃겨했고 다른 사람들의 가리킴으로 그 바위를 본 지화는 줄도했다. 줄도한 지화를 깨우느라 비상구조물자가 또 하나 줄었고 배틀 그라운드에 환장한 시우는 '구상 아깝다'며 짜증을 냈다. 기계치인 지화는 사람들의 친절함 안내대로 힘겹게 고주선을 작동시키고 연결시켰다. 그런데 지화의 스피커에선 한마디가 더 나왔다.

-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절약장이인 지화는 한참 안 쓰던 에어컨의 사용설명서를 꾸역꾸역 찾아 읽는데 맨 뒤에 QR코드를 스피커의 지시대로 창문에 인식하니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또 다른 사용설명서가 나타났다. 그 설명서는 이 고주선의 작동법이며 제작 보고서였다. 영어로 된 그 설명서를 읽어주고 외국인들이 해석을 해주는 식이었다. 그렇게 파악된 전사는 팔목상대할 만했다.

근대의 한 윤리과학자가 노파심에 진행한 연구에서 인류는 결국 욕망과 무책임한 발전으로 인해 자멸할 것이란 결과가 나와 자신이 주장으로 있는 '궁극윤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학회'에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주장, 아슬아슬하게 과반수로 작업에 착수, 시행했다.

프로젝트의 개요는 유사시 우주선으로 이용 가능한 구조로 사람 한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방을 설계해 세계 각지에 분포해놓는 것이다.

핵심적으로 유사시 날아갈 집들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집들에 우주개척을 위한 '씨앗'을 매달아 놓았다는 것이다. '크기를 줄인다고 줄였지만 너무 거대해 집에 매달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적혀있었다. 그러니까 매달려있는 바윗덩어리가 씨앗, 곧 지구의 씨앗이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지화는 또 한 번 실성했고, 시우는 구급상자

소모에 아쉬워했다.

프로젝트에 착수한 이 집단은 그들 스스로를 노아(NOAH)를 거꾸로 적어 하온(HAON)이라고 칭했다. 하온은 이 무지막지한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몇 세대에 걸쳐 그들만의 정보를 비밀리에 세대전수하기로 했다. 게다가 세대를 거친다는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식들이 다른 진로를 택하는 등의 이탈이 있을 경우 그 집은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정도로 엄격하게 진행했고, 인부들에게도 비개방적이고 강압적인, 비상식적인 업무진행을 요구했으므로 실질노동자의 공급이 부족해져만 갔다. 그로 인해 완성이 되어감에 따라 오히려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현재에 이르러 그 고시촌, 판자촌, 또 반지하와 같은 유사거주지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도 그곳을 소유한 이도 모르는 진실만이 도사리고 있게 된 것이다. 재밌는 점은 하온의 애초 목적은 부르주아들의 '날아다니는 방공호' 같은 느낌이었지만 현대로 오면서 주거개념이 '부자=큰 집 거주'가 되면서, 그 작은 방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들의 차지가 된 것이다.

설명서에 적힌, 장차 지구가 될 이 씨앗의 원예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기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선 물과 햇빛 등이 필요하지만 지구가 자라기 위해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무엇의 작은 요소라도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최초발아만 안정적으로 한다면 기존 행성탄생원리에 따라서 '알아서 클 것'이라는 이론이었다.

모두들 황당해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행성의 탄생은 큰 먼지덩어리가 모이고 모여서 사이즈를 키우고 중력을 키워 비슷한 크기의 다른 행성끼리 영겁의 시간동안 싸워야만 겨우 쟁취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설명서대로라면 무슨 꽃을 키우듯 간단하고 빠른 일처럼 보였다. 모두들 믿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화는 다음의 내용을 읽었고, 그제야 하나 둘 신기해하며 믿음을 가지는 분위기였다.

그 내용인 즉, 이 '지구의 씨앗'이란 곧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들이 연구하고 탐사하던 지구의 최종심부에서 운 좋게 건져 올리게 된 글자 그대로 '미지의 물질'이었다. 항간에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한 번 태어난 행성은 DNA(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으나)같은 일종의 유전체계를 가져, 씨만 잘 뿌리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재탄생할 수 있는 셈이다. 사실 완전히 정확한 측정이란 불가능해서 복숭아처럼 정말로 가운데 있었던 건지 수박처럼 여러 위치에 분포해 있었던 건지는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건져 올린 조각의 아주 미세한 일부를 분석하고 연구해 가상의 우주공간을 적용한 실험을 한 결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점차 행성의 모습을 자체적으로 갖췄다는 것이다. 정말 행성이 탄생하듯. 그 다음은 그저 완성된 '지구 2세'에 정착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온은 현재 태양계의 행성 간 궤도와 안정성, 고주선이 날아갈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고려해서 '씨앗 견인 고주선'이 정확한 위치로 발사 되게끔 계산해놓은 것이었다. 물론 그 거주자가 우연히 지화였던 것이고.

이들은 대체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얼마나 이해해야하는지는 몰랐으나 한 일본인의 "그럼 지구의 지진은 그 돌조각을 뺀 부분으로 땅이 꺼져서 생겼던 것 아닙니까?"와 같은 다소 섬뜩하지만 이 상황에서 웃음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지독한 농담으로 인해 우선 행동을 하고 보자는 쪽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어서 지화가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만들까요?"와 같은 농담으로 더욱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려했다. 그러나 지화가 주의사항을 읽었을 때 분위기는 또 다시 불안해졌다.

씨앗이 달린 집을 초기 배양실로 써야만 한다. 씨앗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각 집을 만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씨앗이 집보다 커질 때쯤 집 자체를 흡수하며 폭발적으로 자랄 것이다. 조작은 간단하다. 집 밖으로 빠져나온 후 배터리 넣는 부분 안쪽에 있는 붉은 버튼을 누르면 된다.

농담으로 던진 비닐하우스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지화는 또 실성할 뻔했지만 정신을 붙잡았다. 열혈 화훼업자인 지화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지구를 식물처럼 과종하고 받아시켜 생장해선 이윽고 성목하는 그 궁극의 원예과정이 흥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다. 설명서에 대해 신뢰와 불신의 진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각자의 이기심과 위선이 소리 없이 빗발치는 가운데 우지는 고심 끝에 자신의 집을 내놓는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했다. 지화만 괜찮다면 자신의 방에서 같이 지내자는 것이다. 지화는 우지의 고운 심성이 보여 고마운 마음으로 수락했고, 그렇게 우주에서의 동거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물론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이 아니냐는 계획반대파의 무의미한 공격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 집의 조작 리모컨을 지화에게 넘김으로 모든 의심을 불식시켰다. 그리곤 한 마디 뱉었다.

“여기까지 와서 뭐하자는 겁니까? 정신들 좀 차리세요!”

우주에서의 이사는 무척 힘들었다. 완벽한 도킹(고주선끼리 접근하여 결합하는 일)은 필수불가결이었다. 도킹이 가능한 상태의 고주선이었지만 조종사들이 일반인이었기에 사실상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게임으로 단련된 시우가 조종을 맡아주었고 무사히 성공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언어통일이 필요했다. 핵심 단어인 ‘지구 씨’의 표현이 관건이었다. 국어 1등급인 우지가 이 타이밍에 지구를 의인화하는 재치를 발휘해 ‘Mr. Earth’ 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언어센스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비로소 [Mr. Earth - 지구 씨]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우주에서도 '나 혼자 산다'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우지가 방 안의 어색한 공기를 내보내려 농담을 던졌다.

“대신 '우리 결혼 했어요'같은데요?”

지화의 순수하고 직접적인 농담받기에 우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공시공부로 인해 연애감정이란 것이 피폐한 우지는 바보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전에도 지구가 있었던 걸까요, 그럼?”

붉어진 얼굴을 숨기며 화제를 돌리는 우지였다.

“어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뭔가 무서워요...”

“우린 이렇게 다 쓰면 버리고, 다 쓰면 버려왔던 걸까요, 지구를. 일회용품처럼...”

지화와 우지는 황색가스에 뒤덮여 부글거리는 지구를 하염없이 바라봤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비상전력이 바닥을 드러내려는 순간에도 2세대 지구의 성장의지는 묘연했다. 비상전력으로 버티는 목숨에도 한계가 있었다.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 기계치였던 지화의 파종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원이 생겼고, 그에 따라 지화를 지지해주기 위함인지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선지 지화의 옹호파도 생겼다. 갈등은 거세졌고, 허나 상황의 특수성과 심각성으로 인해 지화는 수세에 몰렸다.

“꽃을 심어야 할 거예요..!”

유약한 지화가 결국 정신을 잃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발언을 내뱉곤 눈을 번쩍였다. ‘꽃 같은 소리’ 하지 말라며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다.

“왜, 왜 말이 안돼요, 그게?! 지구의 씨앗에 지구의 꽃을 심어보는 게 얼, 얼마나 일리가 있습니까?”

우선 상황을 수습하려 던진 말이었지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말이었다. 계

란으로도 바위를 못 치는데 꽃을 그 단단한 바위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이제 아예 내놓고 비웃어댔고 정분이 났다느니 하는 루머까지 만들려했다.

“내 꽃을 심어보시오.”

처음 듣는 목소리였고, 사람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아왔다. 잠자코 있던 인도인 노파였다. 노파가 자신의 허름한 집 한쪽 방을 열어 화분을 꺼냈다. 화분에 덮여있던 검은 비닐을 제거하자 검게 빛나는 꽃 한 송이가 드러났다. 허나 꽃이라기엔 그 크기나 모양이 나무에 더 가까웠다. 각종 주제로 날을 바짝 세우고 싸우던 사람들은 그 이름 모를 꽃이 주는 웬지 모를 편안함에 누그러들었다.

“그 꽃은...”

그런 꽃은 처음 본 지화가 생경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나도 정확한건 몰라요, 그저 집안의 가보처럼 키우고 있었다요. 허나 이 꽃이 이렇게 훌륭하게 쓰일 수만 있다면 우리 어머님도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거라요.”

검은 꽃을 한참 바라보던 지화는 고개를 휙 돌려 기대에 차 우지를 바라봤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정확히 모르는 우지는 난감해서 눈만 굴렀다.

문제는 여전했다. 과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금기 같은 조건을 깨도 된단 말인가? 이성을 되찾은 사람들의 설전 끝에 초기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만 접근했다는 결론과, 씨의 유무에서 지구를 식물로 보면 인간은 일종의 벌과 같은 역할 할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벌이 꽃가루를 옮기듯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물론 예상에 불과했다. 정작 실행한 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인류의 존망이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적어도 여기엔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비극은 사실 이들이 어쨌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였다. 야속하게도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그들에게 우주에서의 부동(不動)은 곧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지화의 고주선에 도킹한 우지는 호흡마저 멈춘 채 걸음을 내딛었다. 시우에게 빌린 야간 투시경을 끼자 지화가 머뭇거리며 불렀다.

“방이 좀 더러워도 이해해줘요, 급하게 나와서...”

우지는 그런 모습이 귀여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뒤따라가던 지화는 발에 이상한 것이 발에 걸리자 소리쳤고 우지가 확인해보니 몇 벌의 우주복이었다. 씨앗 발아 시 비상탈출용으로 숨겨져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지

화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처음 입어보는 터라 장장 1시간여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환복한 둘. 지화, 가져온 검은 꽃을 조심스레 우지에게 건넨다. 꽃을 받아든 우지가 바위에 꽃으려다 멈추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약간 놀란 지화는 바위와 우지를 번갈아봤다. 우지는 투시경을 벗더니 지화에게 썩워준다. 우주최초일지도 모르는 행성으로의 화훼이식이라는 놀라운 순간을 종사자이기도 한 지화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마음이 고마운 지화는 수줍게 웃었다. 떨리는 손으로 바위의 틈에 조심스레 꽃을 꽃으려는 우지. 그때 꽃이 알아서 뿌리를 움직여 자리를 잡아갔다. 화훼업자인 지화에게도 놀라운 광경이었다. 바위에서 멀찍이 떨어진 둘은 한참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위를 쳐다봤다. 우주복 안에서 쉬는 숨이 안면유리에 김을 맺히게 했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물이라도 줘야 되는 걸까요?”

“애초에 바위에 꽃이...”

지화는 재수 없는 소리하지 말라는 듯 처음으로 찌려봤다. 당황해서 변명을 하는 우지를 보자 또 웃음이 터지는 지화. 지구의 탄생은 안중에도 없는 듯 둘의 재미에 충실하다. 그 상황에 질투라도 난 듯 꽃이 떨리기 시작했다. 둘의 이목이 꽃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꽃은 그 머리 같은 잎을 하늘로 쳐들더니 이내 바짝 말라갔다. 둘은 그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윽고 바위에서 진동이 일며 오븐 속 빵처럼 균열이 생기며 조금씩 부풀어 올랐다. 둘은 자세히 보려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고 곧 눈을 휘둥그레 떴다.

조용하던 오피스텔 고주선의 문이 열리자마자 둘은 뛰쳐나왔고, 바위가 폭발하며 고주선을 터뜨렸다. 걱정했든 조롱했든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일제히 놀라며 그 광경에 소리 질렀다. 기다리고 있던 시우는 레버를 조종해 줄을 감아 그 둘을 환송했다. 줄로 빠르게 달려가는 둘은 무서워 서로를 꼭 껴안았다. 저들도 놀랐지만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다. 우주가 싹틔워준 둘의 사랑을. 둘은 눈을 꼭 감은 채 우주복의 안면유리를 맞댔다.

Chapter 2

의도치 않은 업적으로 일종의 수장으로 추대된 우지는 그들의 쉬운 태도변화가 오히려 약간 역겨웠지만 내색하진 않았다. 우연찮게 꿈을 이뤘기 때문이다. 큰 사건의 발발로 궤도에 흩어져있던 다른 지역 고주선들이 모두 우지 쪽으로 모여들었다. 공책 속에 그린 꿈의 로봇처럼 사람들의 고주선들을 모두 도킹해 인간형 우주로봇을 완성했다. 물론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주에 떠다니는 우주왕복선, 우주 쓰레기들, 생각보다 많은 수의 인공위성 (아마 비밀리에 발사된 것이 많으리라)들이 개별로 떠도는 고주선들에 충돌해 직간접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구가 곧 태어난다는 기대에 힘입어 안전하게 합체하기로 한 것이다. 각 팔과 다리엔 사람들의 고주선이, 가슴부엔 식당을, 복부엔 화장실을 도킹했다. 그리고 두(頭)부엔 노파와 우지의 고주선이 도킹됐다. 그렇게 안정기에 접어들 것 같던 상황은 한 아이의 울음소리에 의해 깨졌다. 엄마가 보고 싶다는 그 아이의 말은 지구에 두고 온 가족들을 또 생각나게 했다. 우지가 해낸 일종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아예 가족들도 데려오자고 했다. 그런데 우지는 마냥 달갑잖아 보였다. 수장이란 높이의 무게가 우지를 누르는 것이다. 여러 질문과 고민이 무게를 더했다. 구출작전이 가능할까? 애초에 귀환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있다면? 구체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고민을 갑자기 떠맡게 된 우지에게 노파가 다가왔다.

“해주실 위로는 감사하지만 지금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힘든 상황에 본의 아니게 통명스레 말한 우지에게 다가온 노파는 짐작했다는 듯 웃었다.

“궤도를 바꿔야 하오. 기존 지구의 위치로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달과 태양계 행성들에 부딪히고 말거요.”

갑작스레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노파를 놀래서 쳐다보자 노파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프로젝트의 계약서였다.

“내가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생존자라오.”

직접 듣고도 믿기지 않는 노파의 설명은 이랬다. 노파에겐 라일리라는 할머니가 있었다. 유능한 인도과학자 라일리는 인도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성공에 있어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단다. 그러나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할 프로젝트였기에 평소 눈여겨보던 과학자가 라일리를 영입한 것. 그러나 초기 과학자들의 전근대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작업방식은 불만이었고, 생명 윤리적 접근이 전혀 없었던 터에 끝내 진력이 난 라일리는 포기를 선언했지만 곱게 봐줄 그들이 아니었다. 고주선의 시범생활자로 선정됐다는 명목으로 라일리를 허름한 집에 살게 했고, 잇속도 잘 챙기지 못하고 심약한 라일리는 그렇게 대대로 그 집에 살았지만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에, 훗날 이럴 때를 대비해 자녀들에게 과학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가망 있는 자녀에겐 프로젝트의 비밀과 계약서를 전해줬던 것이다. 그 손녀가 바로 이 노파, 레일리 할머니다. 감개무량한 우지에게 레일리는 조곤조곤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말했듯 2세대 지구의 위치를 1세대 지구위치로 바꿔야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주 쓰레기들과 곧 부스러질 1세대 지구의 부스러기

를 잘 치워야한다는 것. 그러자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어차피 데려오는 편이 좋다며 우지의 걱정을 헤아린 말을 했다. 우지는 레일리가 자신의 집을 털어주는 게 너무 고마웠다. 먹을 걸 좀 가지고 우지의 방으로 들어오려던 지화는 레일리에게 안긴 우지를 보고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우지는 곧 [지구이주 작전]을 진행했고 그들 팀을 한국 속담이기도 한 작지만 매우 우지의 이름을 따 [Micro Uzi(마이크로 우지)]라고 명명했다. 개요는 이랬다. 아쉽지만 휴머노이드를 해체해 막대기형으로 길게 도킹한 뒤 양쪽 끝을 각각 1,2세대 지구에 착륙시켜 전체적으로 아령 같은 형태가 되어 1세대 사람들이 2세대로 빨리 넘어오는 것이었다. 그 후 1세대 지구가 소멸하면 그 막대기형 고주선을 추진시켜 2세대에 자전력도 만들어 줘야했다. 그 과정에서 생성될 우주쓰레기까지 처리해야 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다.

“이 방법밖엔 없나요...”

“이 방법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런 게 살아간다는 재미 아닐까요?”

우지의 냉담한 한마디를 레일리는 연륜 있는 농담으로 받아쳤다. 우지는 실소를 하곤 다시 어두워진 안색으로 진심을 말한다.

“쉬운 게 없네요. 공시공부도, 지구를 구하는 것도...”

“심지어 노는 것도 힘들다오.”

우지는 그제야 참기 힘들다는 듯 웃어보였다. 작전은 지체 없이 시작됐다. 늦출 시간도, 전력도, 여유도 없었다. 곧 휴머노이드 고주선은 마지막 임무로 기존의 우주 쓰레기를 모아 복부에 화장실로 담아 넣는, 인간이 만든 쓰레기를 로봇이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같은 진풍경을 선사했다. 장관은 이제 시작이었다. 팔과 다리는 도킹해제 후 우지가 있는 머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길게 재도킹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미 바닥났어야 했지만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된 집들이 태양열을 모아둔 덕에 연명했다. 제각각의 모양이지만 하나로 이어진 덕에 이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우주복을 입지 않고도 달려갈 수 있었다. 가까이 있는 고주선이 2세대 지구에 착륙, 1세대 지구 쪽으로 당겨왔다. -굳이 당기지 않고 밀면 안 되냐는 의견에 아직 2세대 지구가 작아서 밀면 오히려 궤도가 이탈될 수도 있다는 레일리였다- 한번 움직이면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우주의 특성 덕에 연료를 잘 아껴 1세대 지구로까지 왔으나 문제는 작아서 바스러져 가는 황색연기로 뒤덮인 돌덩이로 의 안착가능여부였다. 물론 여기까지 와서 하는 수밖에 없었다. 두려움이

문제일 뿐. 조종을 맡은 시우는 마지막 남은 레드볼과 몬스터음료를 모조리 섞어 마시곤 운전엔 초 집중을 했다. 그러자니 착륙은 생각보다 쉬웠다. 2세대 지구 착륙용으로 이미 중력대기권 진입장치가 되어있었다. 좌표를 찍고 들어가면 됐다. 문제는 잊고 있던 지구의 황폐해진 상황이었다. 아무리 준 프로게이머 시우라 한들 시야확보가 불리하니 더욱 조심스러웠다. 다행히 인류 전체가 염원한 무사도착이어선지 안착에 성공했다. 사고 이후 대면한 지구의 첫 모습은 글자 그대로 황량했다. 자세히 보니 우지의 고향인 부산, 게다가 자주 가던 순댓국집이었다. 이런 재난 속에서도 주인할머니는 깨끗하게 국밥집을 운영 중이었고, 길게 늘어선 줄엔 해진 명품양복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우지는 대표로 생존자들과 얘기를 시도했다. 놀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이해시키고 행동하게끔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막상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완 달랐다. ‘왜 이제야 왔냐.’ 부터 ‘니들만 살려고 도망치면 다냐!’ 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마이크로 우지는 당황했고, 화도 났다. 기껏 살리려고 왔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적반하장 수준이니 말이다. 하지만 마이크로 우지에 속해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확인하고 이내 그들도 마음이 누그러들었고 그러자 말이 통해져 상황을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었다.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됐다. 아직 방송통신장비가 멀쩡했더라면 이 기막힌 작전을 누구든 생중계하고 싶었으리라. 물론 이 상황에서도 모든 이들이 협조하진 않았다. 마이크로 우지에 가족이 없는 이들은 대부분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마이크로 우지가 이끄는 이 작전에 탁상공론식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지휘권마저 뺏어오려 했다. 가만히 참고 있던 우지는 단호히 말한다.

“지휘권 같은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문제는 정말 당신들이 프로젝트를 해내냐는 것이죠.”

양복쟁이들은 자신들의 기존 사회지위를 과시하며 무시하는 거냐며, 학력을 밝히려는 식의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그 중엔 대학교수, 공무원 시험 감독관등도 있었다. 우지는 자신의 생계를 쥐락펴락하던 사람들의 등장에 잔뜩 위축되어 말문이 막혔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복쟁이들은 마구 비난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무엇 하나 이루지 못했다는 상처가 있는 우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온 몸을 떨어냈다. 그 떨리는 손을 잡아준 건 지화였다. 지화는 우지를 보고 웃더니 마이크에 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소리치더니 가장 시야가 확보된 하늘에 프로젝트 빔을 쬐 화면을 띄웠다. 화면엔 이 작전을 지휘하는 양복쟁이들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밖에서 기다리는데 양복쟁이들은 그들끼리 지식자랑에 가까운 회의만 거듭하고 있었다. 그새 고주선에 남은 전력은 바닥나 버렸고,

인류는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끝나버렸다. 그 프로젝트를 본 많은 생존자들은 누가 지휘권을 잡든 그저 빨리 움직이고 싶었다. 양복쟁이들은 어리벙벙해하며 따랐다. 지화는 힘내라며 우지의 등을 두드렸고 레일리가 들어왔다. 그 빔은 레일리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든 VR시뮬레이션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생필품과 전력이 동나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 꺼지기 전에 하나로 이어진 고시원들을 지나 다음 지구로 달려가야 한다. 고시원들의 향연은 지평선 너머로 끝없이 이어져 소실점을 이루었다. 그것은 마치 긴 빨대 같았고 그 끝에 어렴풋이 드리운 거대한 2세대 지구의 실루엣은 그것을 물고 있는 사람의 얼굴 같았다. 과학 관련자들이 보기엔 거의 최후의 과학기술로 보여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것이 우주 승강기인가...”

한편 2세대 지구는 미처 못 다 치운 우주쓰레기들과 암흑물질 등을 먹고 잘렸지만 오히려 속도가 너무 빨라 벌써 1세대지구를 침범하려했다. 관건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만큼 크기면서도 못 다 이동한 사람들을 침범하진 않을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는 것. 더군다나 이 혼란 속 못 다 찾은 가족이나 놓치고 온 소중한 것들이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해 작전을 어렵게 했다. 그때 시우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컬렉션 오토바이들을 꺼내보였다. 시우는 그 작은 방안에 오토바이까지 모았다. 게다가 우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마이크로 우지의 기막힌 통술 하에 벌써 2세대 지구까지 달려온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문득 뒤를 돌아보며 ‘이게 정녕 우리가 열심히 생활했던 지구에서의 마지막 모습인가’ 하며 씩씩해한다. 슬프게도 공황 속에 미처 살아남은 유아들과 노인들은 많지 않았다. 그나마 수적으로 많은 유아들을 모든 이들이 안고 업고 등 모든 방법으로 실어날랐다. 기다리던 노인들은 사실 자신들이 짐이 될까 생존포기를 자처했다. 마지막 젊은이들이 손을 뻗었지만 그들은 그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허나 전혀 슬프지 않은 얼굴이었다. 노인들 스스로가 다 탔다고 거짓말하자 문이 닫혔고 1세대 지구는 그 큰 덩치가 거품이었던 양 녹아내려 파편으로 돌아갔다. 그 파편을 양분삼아 2세대 지구는 다시 한 번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생존의 기쁨, 희생의 슬픔을 나눌 시간도 없이 야속한 할 일이 남았다. 레일리 말대로 2세대 지구를 기존 공식에 편입하는 일. 인류는 생존을 걸고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지구회전에 사용해야만 한다. 잔여전력 면에서도, 고속회전 중 생존 여부에서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이 세대는 다음 지구를 완성시키기 위해 산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도 고려됐지만 그래선 미래를 위해 현재와 싸우는 많은 이들의 삶이 허망해질 터다. 모두 각자의 고주선의 전원을 마지막으로 켜다. 그리곤 공전 방향으로 지구를 당

졌다. 곧이어 동시에 리모컨 버튼을 눌러 자전방향으로 급 발진한다. 긴 팔처럼 연결된 고주선들이 합심해서 지구를 던진다. 마치 은퇴 직전 선수의 최후의 투포환 같은 그 모습은 차라리 처연한 오상고절(傲霜孤節)이었다. 2세대 지구는 겨울잠에서 깬 곰처럼 기운이 넘쳐 빠르게 돌며 궤도를 타기 시작했다. 인류는 만들어준 은인을 거부하는 듯한 2세대 지구의 원심력을 버텨내며 걸어 들어간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지화의 밝은 기운에도 이번엔 우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그건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저 애기가 엄마 품에서 편히 잘 수 있는 거겠지요.”

레이리가 불안해하는 우지에게 다가와 보듬듯 말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하죠...”

우지는 텅 빈 마음한구석을 그대로 내어 말했다. 레이리도 선뜻 답을 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2세대 지구는 눈치 없이 건강하게 자란다. 우지는 그 막연하게 순수한 모습에 얼굴을 감싸 쥐고 주저앉아버린다.

여기까지 달려온 우지지만 사실 지나긴 시험 준비에 지칠 만큼 지친 우지의 마음엔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 의연해보였던 그 속은 가을바람결에 나부끼는 낙엽 두 잎처럼 위태로웠다. 매 순간 그만두고 싶었지만 또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기다리는 부모님과 자신이 약속한 것들이 있었기에. 문득 누군가 공무원 준비와 인류 구원이란 선지 두개만 쥐놓고 선심 쓰듯 선택하라고 한 것 같았다. 갑자기 너무 억울해져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다. 무슨 소용이겠냐 싶었다. 그때 누군가 등을 찰싹 때렸다. 지쳐 잠에 들어버렸던 우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살짝 들어본다. 지화다. 지화는 말없이 ‘계속 이럴 거야?’ 하는 얼굴로 우지를 일으키곤 앞으로 데려간다. 어리둥절한 우지 앞에 고마움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 지화가 우지의 고개를 들어서 보여준 앞엔 희미한 푸른빛이 샘솟고 있었다. 우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다가 또 주저앉는다. 그리곤 이제 안도의 통곡을 마음껏 토해낸다. 검은 꽃잎이 우주에서 떠돌다가 바스락하며 사라진다.